

## 후 원 으 로 전 파 하 는 선 한 영 향 력



유튜브 구독자 수 224만 명에 달하는 혼한남매는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초통령이라 불리운다. 사진 왼쪽부터 한으뜸, 장다운.

혼한남매는 남매 콘셉트로 어린 학생들이 재밌게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튜브 인기 채널이다. 혼한남매로 활동 중인 장다운 · 한으뜸 씨는 언제나 ‘나하와 혼한남매’라고 자신들을 소개한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들의 애칭이기도 한 ‘나하’들을 만나 좋아하는 개그를 계속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두 사람의 삶은 구독자들을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

“대부분이 구독자들이 초등학생들이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까 봐 늘 조심하게 돼요. 영상을 만들 때면 꼼꼼한 심의 과정을 거치고, 일상 생활에서도 주변을 살피죠. 그러다 보니 저절로 저회도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성장 해가는 과정이고요.”

### 혼한남매는 나하들과 함께 성장 중

장다운 · 한으뜸 씨는 SBS 13기 공채 코미디언 동기다. 어느덧 연인이 된 두 사람은 2015년부터 SBS 코미디 프로그램인 ‘웃음을 찾는 사람들(이하 웃찾사)’에서 어린 남매의 일상을 코믹하게 풀어내는 혼한남매라는 코너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17년, 웃찾사가 폐지되면서 하루 아침에 직업을 잃고 말았다.

“그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코미디를 그만 두기에는 아쉽고 계속 하기에는 힘든 여건이었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서 방법을 찾던 중 유튜브 플랫폼을 알게 됐어요.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다는 점이 TV와 비슷하길래, 도전해보기로 했죠. 얼마 후, ‘ㅋㅋㅋㅋ’라는 댓글이 달린 것을 보고 얼마



구독자들의 사랑을 사회와 나누겠다는 혼한남매의 다짐은 다양한 나눔과 봉사 활동을 거쳐 서울아산병원 후원으로까지 이어졌다.

나 기뻐는지 몰라요.”

이후 4년 사이, 혼한남매는 유튜브 구독자 수 224만 명을 확보하며 초등학교들의 대통령이란 명칭의 초통령이라 불리운다. 두 사람의 어린 시절 기억에 요즘 아이들의 일상을 더해 만든 에피소드들로 마음을 사로잡은 결과다. 장다운 · 한으뜸 씨는 특히 ‘엄마한테 혼나서 속상했는데 영상을 보며 웃었더니 괜찮아졌어요’와 같은 댓글이 달릴 때면 몽클한 마음에 더 힘을 낸다.

“저희에게 댓글이나 사연을 보내는 경우는 물론이고, 구독자들끼리 댓글을 주고 받으면서 공감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때마다 시대가 바뀌어도 아이들은 여전히 힘들다는 것을 새삼 깨달아요. 동시에 저희가 만드는 영상이 소비만 되고 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하게 돼요.”

유튜브 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도 혼한남매를 만날 수 있다. 혼한남매의 이야기를 주제로 뮤지컬이 제작됐고, 국어와 생물, 과학 등의 내용을 담은 각종 교육 서적들을 출간했다. 최근에는 유명 의류와 파자 브랜드와의 협작을 통해 제품을 출시하기도 했다.

수많은 아이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웃음과 행복을 전파하며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초통령이라는 별명과 현재 받고 있는 사랑에 대해 “부끄럽고 과분하다”며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된 것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게 된 것도 모두 구독자들 덕분”이라고 전했다.

### 나눔에 동참한다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하다


팬들을 향한 애정과 감사는 장다운 · 한으뜸 씨의 세상을 넓혔다. 힘든 상황에 놓인 아이들의 소식을 접할 때면 ‘저 친구도 우리 구독자일 텐데’라는 안타까움에 도움 방법을 찾게 됐다.

또한 혼한남매를 만나는 것이 소원이라는 아픈 아이들의 사연을 받을 때면,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하는 영상을 기꺼이 찍어 보냈다. ‘지쳤던 아이들이 그 순간만큼은 웃더라’는 반응이 쌓이면서 두 사람은 누군가의 인생에 웃음을 주는 기쁨을 실감했고, 그 기쁨을 구독자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다짐했다.

“어린 아이들이 아프거나 힘들다는 내용을 볼 때마다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민간 재단과 함께했던 온라인 봉사활동과 ‘아동 노동 반대’의 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 진행 등의 활동을 비롯한 여러 후원도 이런 이유로 시작했던 것이죠.”

혼한남매는 가정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지난 8월, 서울아산병원에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 확인서에 새겨진 이름은 회사명이나 장다운, 한으뜸이 아닌 구독자를 뜻하는 나하와 혼한남매다. 구독자들의 고마움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과 구독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후원 관련 영상을 본 구독자들이 ‘우리도 후원한 거네요? 저도 커서 나누는 사람이 될게요’, ‘뿌듯해요’ 등의 댓글을 달아줬어요. 이런 경험을 한 어린 친구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후원의 의미를 기억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꼭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후원은 금액보다 나눔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것어요.”

혼한남매는 숙제를 빼먹거나 물건을 잃어버려서 어른들에게 혼나는 등 일상의 이야기를 담는다. 오빠인 으뜸이와 여동생 에이미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 훨씬 바보스럽다. 그래도 남매는 언제나 웃으면서 헤쳐 나간다. 영상을 보는 아이들이 위안을 얻고, ‘웃으면서 지나고 보니 별거 아니었어’라고 생각하기를 바라는 장다운 · 한으뜸 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글 최주연